

## 청소년연구의 사회구조적 접근

— 가족의 사회적 존재양식과 청소년 —

이 종 원\*

- I. 문제의 제기
- II. 방법과 전제
- III. 전통사회 : 원형으로서의 가족제공동체
- IV. 현대사회 : 자본제사회의 가족과 청소년
- V. 맺음말

### I. 문제의 제기

우리사회에서 청소년학은 태동기에 있는 신생의 학문이다. 학계의 폭넓은 호응과 기대속에 출범한 청소년학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청소년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는 기존의 다양한 분과에서 추진되어 온 청소년연구를 종합,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는 길이다.

현단계에서 두가지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상되는 첫번째는 “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 혹은 연구주체의 동일성에 근거한 다양한 학문분과

간의 느슨한 연대이다. 이것은 우리 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신생학문으로서의 청소년학의 존립근거로는 그 당위성이 취약하다. 두번째의 방법은 보다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학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압축하여 청소년학만의 독특한 역사적·사회적 문제의식과 그에 기초한 연구영역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것은 일단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그것을 무조건 청소년학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하자는 입장이다.

자연과학에서 인문, 사회과학의 영역에 이르는 방대한 연구들을 하나의 학문분과로 아우르고 있는 인류학이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인류학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라면 그가 인체의 유골을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류학(형질인류학 또는 고고인류학)의 연구로 발표되고 인정받는다. 연구대상 또는 주체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생물학의 영역에 속해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학문적 공동체의 형성은 연구의 대상이나 주제의 동일성에서 한 단계 전진한 그 무엇 - 필자는 이것을 연구대상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 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청소년학의 역사적·사회적 문제의식이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가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토론과 논쟁에 맡겨져야 할 사항이지만, 필자의 생각을 거칠게 표현해 보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을 역사적, 사회적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론화하려는 지적인 동기”이다. 다소 추상적인 논의가 되고 말았지만, 예컨대 청소년학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여성학의 예를 들어보자. 여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성학만의 독특한 영역과 학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독자적인 시민권을 획득한 놀라운 자생력이다. 그 힘의 원천이 다름아닌 그들의 공유하고 있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문제의식에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그것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될 때에만 학문은 건강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 II. 방법과 전제

본고는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양식을 기본적으로

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성격을 역사적,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초점은 성별분업과 연령위계의 체계로서의 가족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생산체계 속에서 각각 어떻게 규정되고 기능했는가이다.

“사회구조”는 총체사회 파악 *societal comprehension*을 지향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사회과학의 제분야에서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자원과 기회의 분배구조”의 측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 각각의 사회구조에는 사회적 자원(생산수단, 생활자료, 부, 권력, 명예, 위신 등)과 기회(자원에의 접근가능성)가 일정한 패턴으로 분배되어 있는 자원, 기회의 분배구조가 존재한다.

2) 이 특정한 분배구조를 통해 사회구조는 성원의 욕구와 가치지향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유지하고 있다.

3) 이 분배구조는 자원 및 기회에 관한 그 사회의 독특한 분배의 규칙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자원·기회의 분배구조에 관한 사회학적 과다다임은 크게 두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1) 계급모델 *class model*과 (2) 위계모델 *hierachy model*이라 지칭하기로 한다.<sup>1) 2)</sup> 유형 (1)의 계급모델은 자원과 기회가 특정 사회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전유되어 이를 소유한 지배계층과 그로부터 배제된 피지배계층간의 갈등과 투쟁에 주목한다. 일종의 2항 대립 *binary opposition*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적유물론 또는 사회구성체론을 들 수 있다. (2)의 위계모

1) 보다 일반적인 분류로는 “갈등이론”과 “균형이론”의 구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갈등”과 “균형” 개념의 불명확성, 가치관의 적 성격 때문에 적절한 분류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델은 자원·기회의 분배구조가 사회적으로 성층화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여 연쇄적·위계적인 자원, 기회의 분배구조와 위계상의 이동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의 2항 대립모델과는 달리 계급간의 대립의 이미지는 선형적으로 불식되고 있으며 자원·기회의 격차와 불평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과제로 삼고 있다.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사회체계론이 이에 해당된다.

양자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인류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음에 비해 후자는 기본적으로 현대 자본제사회의 분석에 치중하여 역사론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별 분업과 연령위계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주로 계급모델을 준거틀로 하되, 계급과 성별·연령별 위계의 개념적 차이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계급모델에 있어서 인류사회의 역사는 원시공동체에서 자본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구성체의 이행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2분법적 구분을 사용하여 전통사회의 원형으로서의 가족제공동체와 현대 자본제사회에 있어서의 성별분업과 연령위계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제공동체” *domestic community*는 원시농경사회의 생산양식과 가족관계를 연구한 메야야수(Claude Meillassoux)의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본고에서의 가족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주로 메

야야수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 Ⅲ. 전통사회 : 원형으로서의 가족제 공동체

#### 1) 생산양식

전자본제사회의 생산양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게 있어서 원시공동체사회의 본질은 인격적 지배 관계에 기초한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자급자족적 농경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만일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주를 물질 생산에 국한한다면 이러한 이해는 정확하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불가결한 생산자의 재생산 문제, 구체적으로 혼인관계를 고려에 넣으면 이와 같은 이해는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인류학적 연구성과에 기초하면 예외적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인류사회의 지배적인 혼인형태는 공동체간의 여자의 교환을 통한 족외혼 *exogamy*이었다.<sup>2)</sup> 공동체내의 친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상간 금지 *incest taboo*는 인간본성에 기초한 도덕적 관념이라기 보다는 공동체 존속에 불가결한 인간재생산의 메카니즘을 통제하기 위한 이태올로지적 수단이었다.<sup>3)</sup>

농경활동은 경작 - 수확 - 휴경이라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생산활동으로서 그에 따라 작업에 참여하는 성원들간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즉, 다음의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항상 이전의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

2) 원시공동체에서 족내혼의 존재는 고전인류학의 모건(Lewis Morgan)과 엥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류학에서는 기능주의 이론, 구조주의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 등 학파에 구분없이 대체로 원시공동체에서 족내혼이 지배적인 혼인형태였다는 주장은 부정되고 있다.

3) 근친상간 금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우생학적으로 근친상간 금기가 인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되었다는 생물유전학적 설명과 사회집단의 형성을 위한 불가피한 고안이었다는 사회학적 설명이 대립되고 있다. 현대의 사회과학에서 사회학적 설명이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음에 비해 생물유전학적 설명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연장자와 연소자간, 나아가서는 세대와 세대사이에 생산물의 선대 *advances* 와 반제 *returns* 라는 독특한 유통관계를 형성한다. 한 농사주기의 생산자 전체가 다음 주기의 생산자 전체에게 생활자료와 종자를 선대한다. 가령 노동자 대부분이 다음 주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의 구성은 변한다. 인원구성의 점진적인 변화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대교체로 발전한다. 이로부터 “먼저 태어난 자”와 “뒤에 태어난 자”, 즉 연장자와 연소자의 위계가 사회적으로 확립된다. 그 집단의 최고연장자는 과거의 조상이 남겨준 모든 혜택을 관장하는 공동체의 화신으로 부각된다.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연장자의 주요업무는 생산물의 관리와 보관이다. 그리고 이 기능 또한 선대와 반제의 논리에 의해서 새로운 성원에게 순환적으로 인수되어 결국 연장성(즉 “연령”)에 의거한 위계관계가 그 사회의 인간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농경민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노동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과 생산관계의 재생산,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생명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의 농경생산이 요청하는 인원수와 생식적 증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의 규모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생산보다는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생명재생산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된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자체내의 여성만으로 기존의 생산조직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구학상으로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질병, 불임 등 여성의 출산력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기초한 타공동체와의 통혼권의 형성이 불가결하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은 남자일 수도 있고(여자비이동제 ; *gynecostatic*), 여자일 수도(여자이동제 ; *gynecomobility*)이다.<sup>4)</sup> 여자는 자녀생산에 있어서 남자보다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시공동체에서 여자이동제가 보다 선호되었음은 대부분의 인류학적 연구에서 일치하고 있다.

토지가 노동수단으로 이용되는가 아니면 노동대상으로 이용되는가는 그 공동체의 사회조직과 성격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sup>5)</sup> 토지를 노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농경사회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생산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공동체와의 전쟁은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자의 교환은 약탈, 유괴 등의 일시적,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쌍무적인 협약에 의한 장기적, 평화적인 방법이 선호된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산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혼인의 관리는 공동체 내부에 이를 관장하는 정치적 기능과 그 담당자를 형성하게 된다.

생산물의 관리기능을 통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공동체의 연장자는 생산인력의 확보를 위한 생명재생산의 관리도 책임지게 된다. 타공동체와의 여자의 교환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순환적으로 되풀이 되는 거래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가입기의 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공동체와

4) 여자이동제는 부거제(夫居制), 부계제, 부권제의 사회제도와 연결되고 여자비이동제는 부거제(婦居制), 모계제, 모권제의 사회제도를 낳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자비이동제의 역사적 존재를 입증하는 경험적 사례는 극히 드물다.

5) 수렵·채집을 생업양식으로 하는 군단(群團 : band)은 토지를 노동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경사회와는 이질적인 사회관계와 조직을 형성한다. Meillassoux, Claude(1975), *Femmes, greniers et Capitux*, Librairie, Francois. ; 김봉을 옮김(1989), *자본주의와 가족제공동체-여성, 곡창, 자본, 까치*, pp. 30-38 참조.

의 쌍무적인 협정에서 여러공동체와의 다각적인 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협상의 내용도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조혼, 약혼, 예부혼 등은 이처럼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된 고안들이다.<sup>6)</sup>

연장자는 타공동체와의 거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내의 혼인관계를 금지하고 가임기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자의 교환관계를 매개로 하여 공동체가 대외적으로 개방될 때 연장자의 권력은 생활자료의 통제에서 여자의 통제로, 나아가서는 성원 전체에 대한 통제로 점차 확대되어 정치적 기능을 갖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확산을 통해 공동체의 규모가 점차 커갈수록 현실적으로 공동체 성원간의 족내혼 *endogamy*의 가능성은 높아간다. 이것은 곧 혼인관리를 통해 구축된 연장자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를 위한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이데올로기가 고안되기에 이른다. 공동체의 연장자가 집행하는 주술, 제사, 종교의례는 그에게 종속된 연소자들, 특히 가임기의 여성들에게 미신적인 공포감을 부여한다. 성적 금기 위반에 대한 징벌이 강화되고 족내혼은 근친상간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한다.<sup>7)</sup>

또한 물질생산과 생명재생산이 질서있게 통일되고, 특히 종속적인 사회조직을 약탈하지 않고서는 존손할 수 있는 능력때문에 가족제공동체는 일단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산물 또는 생산자를 노리는 다른 공동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체를 방위할 필요성에서 새로운 강제가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권력과

강제는 그 자체가 강화될수록 그것을 붕괴시키는 요인을 내부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공동체가 이와 같은 내부적·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자체를 적절히 방어할 수 없을 때 가족제 공동체는 와해되고 만다.

## 2) 성별분업과 연령위계

여자는 생명재생산에서 대체될 수 없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가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여자는 남자 - 그녀의 아버지, 형제, 남편 - 의 등 뒤에 가려 있었다. 여자가 놓여 있는 이와같은 조건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생명재생산 기능과 연관된 가변적인 역사적인 상황의 산물이다.

원시사회에서 여성은 생명의 재생산자로서의 자질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산인원 확보를 둘러싼 끊임없는 유괴, 약탈의 목표가 되어 항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여성들은 체력이나 자기 방어능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여자약탈을 목적으로 동맹한 남성들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의 위협에 빠지기 쉽다. 여자들을 공동체 내에서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전성원들, 특히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남성들의 조직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년에 걸친 여성의 예측상태의 전주곡이 되었다.<sup>8)</sup>

타공동체와의 안정적인 여자교환관계가 성립되면 여자들은 확실히 보호와 예측의 위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타공동체 남자와의 혼인을 통한 자기집단으로부터의 추방을 감내하고 자기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길들여진다. 여자의 사회적

6) 앞의 책, p. 74.

7) 앞의 책, p. 74.

8) 앞의 책, pp. 118-119.

역할은 가임기의 연령에 이르러 생명의 재생산자로서의 잠재능력이 출현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여자의 능력이 제도적으로는 부정된다. 즉 남자만이 사회적 유대를 재생산하는 권능을 보유한다. 친자관계는 남자를 통해서밖에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임기의 여자는 출산이 부계의 친자관계의 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정한 혼인을 위해 관리되며 예측된다.

그러나 생식능력이 부정된, 폐경기가 된 나이든 여자는 이들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그녀에게 거부되었던 권력을 획득한다. 과부가 되어 출산할 수 없게 된 여자의 자신의 남편이 누렸던 권력을 누릴 수도 있다. 즉 나이든 여자는 남편이나 남편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자관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 남자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한다.<sup>9)</sup>

이와 같은 여자의 종속은 두가지 형태로 착취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착취이다. 여자는 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농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물질생산자로서의 정당한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녀가 생산한 생산물은 남편을 통해 연장자에게 넘겨져 오직 남자의 중개를 통해서만 공동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출산능력에 대한 착취이다. 출산을 통해 형성되는 친자관계 즉 자녀에 대한 권리는 항상 남자의 수중에 장악되는 것이다.

공동체내의 권력관계에서 연소자는 연장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에서 여자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나 연장자의 연소자에 대한 관계를 계급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령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는 과도적인 시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연장자가 착취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착취된 경험없이 그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이다. 공동체사회에서 연장자들은 선대와 반제의 주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연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반제한 연후가 아니면 연장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연장자들은 연소자들에게 생명재생산의 수단, 즉 아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 연소자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것은 동시에 연소자의 연장자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연소자는 차례대로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에 따라 증대되는 권력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소자는 자기 어머니의 노동생산물과 아내의 노동생산물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여자들에게 연장자의 협력자로 나타난다.

연장자와 연소자의 대립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며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제도에서 혜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여자를 소외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성인의 지위, “아버지”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은 연소자들이 연장자들의 빈틈없이 엄격한 관리하에 있는 사회질서의 구속적인 규율들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규율들은 연소자들의 개별성과 결정권한을 집합체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연소자들이 연장자와 대립하게 되면 연장자들의 평의회는 대체적으로 연소자들에게 불리하다.<sup>10)</sup>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계급관계를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계급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된 착취관계가 수반되

9) 앞의 책, p. 120

10) 앞의 책, pp. 123-127.

어야 한다. 즉 어떤 지배계급도 스스로 권력의 도구를 피지배계급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본을 양도하지 않는다. 영주는 농노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계급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다. 이와는 반대로 연장자는 가족제의 생명재생산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에게 종속된 자들에게 여자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 사회계급은 “연장자” 혹은 “연소자”라는 범주에 의거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전체가 타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창출된다. 이 지배는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지배하는 공동체의 전성원과 지배되는 공동체의 전성원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물질생산과 생명재생산의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가족제공동체의 붕괴는 가족과 전체사회의 분절화를 초래했고, 이것은 곧 인류사회에서 계급관계의 출현을 의미했다.

#### IV. 현대사회 : 자본제사회의 가족과 청소년

##### 1) 생산관계 : 자본과 가족의 대립

사회제도로서의 가족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현대가족의 보편적인 유형은 과거의 대규모 친족집단에서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nuclear family*으로 바뀌었다. 현대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고립성 *isolation*, 양계성 *bilaterality*, 그리고 부부중심성을 들 수 있다.<sup>11)</sup> 즉 현대의 핵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단위를 이루며 남편의 부양책임하에 독자적인 가계단위를 구성한다. 독립된 주거는 가구 *household* 단위가기 때문에 부모형제와의 관계가 약화되어 상대적인 고립성을 갖게 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혼인한 자녀들의 자립과 독립적 가계를 전제로 성별 및 순위상 우선권의 인정없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의 기본축이 부자관계에서 부부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자본주의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생산은 주로 사용가치의 실현, 즉 직접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교환을 위한 생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도덕시되어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생산조직은 가족집단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물질생산과 생명재생산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원시공동체의 가족이 물질생산과 생명재생산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단위였음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물질생산의 기능은 점차 퇴장하고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물질생산의 기능은 산업화로 인해 공장, 자본으로 옮겨가 가족의 기능은 생명재생산 및 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기능으로 축소된다. 이로 말미암아 직접생산자(가족)와 생산주체(자본)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양자간의 대립과 갈등이 형성된다. 이 대립과 갈등의 조정이 사회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사활이 걸린 중심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자본주의로 인하여 야기된 생산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다음 두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1) 생산활동은 오직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에

11)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파슨스 등 구조기능학파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파슨스의 현대가족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중산층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현대가족의 성격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lliot, Faith Robertson (1986), *The Family : Change or Continuity*, Macmillan Education ; 안병철, 서동인 옮김(1993),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pp. 62-66, p. 139 참조.

의해서만 실현된다. 직접 생산자는 필연적으로 임금노동자이지 않을 수 없다.

2) 생산활동의 주된 목적이 즉시적인 소비에서 장래를 위한 무한정한 축적으로 변질되었다.<sup>12)</sup>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생산자의 분리에 의해서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이 생산과정의 불가분한 일부가 되었고, 노동력의 재생산은 이 교환체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생활자료의 생산은 점차 전문화하여 분업이 지역과 가족규모에서 전체사회 규모로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과 더불어 비인격적·경쟁적인 시장법칙이 모든 종류의 생산활동을 규제하게 되었다.

과거의 생산활동이 자신과 공동체의 단순재생산을 위한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에 반하여, 오늘날의 생산주체인 자본가에게 있어서 잉여가치의 실현을 통한 확대재생산은 생산조직의 사활을 건 지상명령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가에 의한 축적의 필연성과 생산자에 의한 임금과 노동력의 교환의 필요성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가족도 또한 잉여를 필요로 한다. 즉 생산자의 즉시적인 생존요구를 초월하는 물질 자원의 필요이다.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한 유일한 노동력으로서의 남성은 생산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본제사회에서 여성과 청소년은 그들의 현실적인 노동능력과는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타자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비자립자는 인류역사의 어느 사회에도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구성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즉 유아와 신체장애자와 같은 불변적인 구성요소 외에 여성, 청소년, 노년자는 그들의 지위에 관한 사회적 해석에 의거하여 생산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생산자의 지위를 접해 왔다. 자본제사회에서 특히 후자의 그룹은 이념적으로 또는 법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가족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자신의 생활비를 가족중의 임금노동자에 의존하게 된다.

자본가가 그 계급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축적의 요구와 비자립적인 성원의 부양을 위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잉여는 자본과 가족이 잉여를 둘러싼 적대적인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자는 또한 불가피하게 상호의존적으로서 서로 타자를 자신의 존립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자본은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가족도 생존을 위해서는 자본이생산하는 생활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자본과 노동의 모순, 바꿔 표현하면 물질생산과 인간재생산의 모순관계가 출현한다.<sup>13)</sup>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오직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잉여를 포기하는 자본은 논리적으로 존립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은 자본의 논리에 맞추어 자신의 부양지수 *dependency ratio*를 재조정한다. 즉 장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자녀의 기대교육수준을 낮추거나 이에 원천적으로 자녀의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대응노력이 한계에

12) Short, James F.(1981), *The State of Sociology*, Sage Publications, Inc.; 社會分析學會 編(1981), *世界の社會學*, 恒星社 厚生閣, p. 257.

13) 앞의 책, p. 258.

도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집합체 수준에서의 조직화된 사회운동에 의존하는 길이다. 가족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전자의 선택에 비교할 때 후자는 매우 생산적이며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 실현 여부는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조직화·활성화라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제사회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그것이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가족과 자본 모두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가 타자를 자신의 존립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항대립에서 잉여를 둘러싼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기보다는 타협과 조정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자본에게는 재투자를 위한 적절한 이윤과 가족에게는 생활수준의 점진적 향상을 가져왔다.

## 2)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양식

가족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의연히 지속된다. 즉 가족은 세대적인 면뿐 아니라 일상적인 면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녀를 자본제적 가치와 계급관계로 사회화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의존한다. 즉 자본제적 산업화는 사회적 생산활동은 일차적으로 남성에게,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라는 성에 기초한 노동력의 분업을 동반한다. 여성이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남성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산업예비군의 성격으로서이다. 이 경우에 여성은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한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임금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여성은 사회의 공적 생활부문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또한 그녀의 노동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며, 여성의 가사노동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남편의 임금은 오직 남성의 노동의 대가로만 표상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교환수단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오직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임금의 사적 재분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종속이라는 귀결을 낳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동원된다.

자본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것은 이들이 과거에서부터 종속해 왔던 연령집단이었던가 보다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전”되거나 “발명”된 세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은 오직 미완의 사회적 자원으로 모든 사회적 생산활동으로부터 유예된 채 오직 기능성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평가받는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와는 달리 가족내에서 자신의 역할모형을 발견할 수 없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자신과 사회의 바람직한 존재양식을 모색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일종의 가능태로서 현존하고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사회구조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물질(생활자료)의 생산과 인간(생산자)의 재생산이라는 두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제공동체에서의 가족은 이와 같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그 자체였다. 가족의 구성원리 자체가 전체사회의 구성원리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전체사회와 가족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즉, 가족은 물질생산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농경 생산활동에서의 선대와 반제의 원리에 기초한 연장자-연소자의 관계(이것은 곧 부자관계의 외연적 확장에 다름아니다)가 그 사회의 권력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다. 또한 타공동체와의 여자의 교환을 통한 혼인의 관리와 통제기능의 발전은 그 사회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하는 토대가 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사회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였으며, 연소자와 연장자의 관계는 계급적 지배-종속관계라기 보다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여성노동의 이용을 둘러싼 일종의 협력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자본제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인간재생산의

기능으로 축소되었고 물질생산활동은 전체사회의 차원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자본과 가족의 대립과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가족의 유일한 노동력으로서의 남성(가장)은 자본으로부터의 획득한 임금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한편, 확대재산을 생존의 논리로 하는 자본은 생산을 통해 얻은 잉여를 끊임없이 생산활동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잉여를 둘러싼 자본과 가족의 대립구도는 자본제 사회의 기본모순을 형성하고 있다.

자본제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형식적인 평등권은 확보하였으나 사회의 공적부문으로부터 배제되어 가사노동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사회적 생산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사회의 바람직한 존재양식을 모색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일종의 가능성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이수, 지은희(1988) “한국 여성연구의 자성적 평가”,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편,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 이종원 (1988), “현대자본제사회의 계급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논문집.
- 이종원 편역(1988), 자본제사회의 존립구조, 인간사랑.
- 이호재 편(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1992),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 편 (1991), 청소년학대회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 Elliot, Faith Robertson (1986), *The Family: Change or Continuity*, Macmillan Education; 안병철. 서동인 옮김(1993),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 Service, Elman, R. (1971),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신형식 옮김

- (1986), 원시시대의 사회조직, 삼지원.
- Short, James F.(1981), *The State of Sociology*, Sage Publications, Inc.; 社會分析學會 編 (1981), 世界の社會學, 恒星社厚生閣.
- Meillassoux, Claude (1975), *Femmes, Greniers et Capitux*, Librairie Francois. ; 김봉을 옮김(1989), 자본주의와 가족제 공동체-여성, 곡창, 자본, 가치.
- Michel, Andre (1986), *Sociologie de la Famille et du mariage*, DUF. ; 변화순.김현주 옮김 (1990),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 宮澤康人 編(1988), 社會史のなかの子ども, 新曜社
- 庄司興吉外 編 (1988), 日本の社會學 17-體制と變動, 東京大學出版部